

2019 EAACI 방문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호흡기내과 이지호

유럽 알레르기 학회는 세번째 참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포르투갈이라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덜 알려져 있고 그리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지 않은 곳이라는 점이 끌리게 되었고, 블로그에서 본 아기자기한 골목과 트램의 풍경은 더욱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이번에 리스본에 가지 않으면 언제 또 이곳에 와볼 수 있으랴? 그렇게 학회 참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와서 보니 비슷한 생각으로 온 분들이 많이 있었다.

리스본은 포르투갈의 수도로, 인구 200만의 비교적 작은 도시이다. 다른 관광지만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과 긴 줄을 볼 수 있었다. 대규모 학회를 진행할 만한 컨벤션센터가 없는 탓인지 컨퍼런스 장소는 실내 체육관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둘째 날 만성 두드러기 강의에서는 독일의 Marcus maurer 교수님께서, 물리적 두드러기가 흔히 동반되나 이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시며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두드러기 치료가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이 한국의 실정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병력 청취로 물리적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현실에 아쉬움이 들었다. 이어서 중증 천식에 대한 초록 발표 시간에는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어 중증 천식에서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약물로도 완전한 천식의 조절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에는 면역치료 환자들의 데이터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청중이나 사회자가 어떤 질문을 할까, 질문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 걱정과 기대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는 사회자의 모습에 약간 서운함이 들었다. 박해심 교수님께서 여러 강의와 좌장으로 쉬지 않고 정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학회장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일단 열심히 공부하자 다짐을 하기도 했다. 헬싱키 대학의 Tari Haahtela 교수님이 사회를 맡으신 천식 초록 발표를 들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시지만, 참 유머러스 하고 발표자를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 분께서 넷째 날 biodiversity에 대한 주제로 plenary 강의를 하셨는데, 깊은 통찰력과 간간히 섞인 유머로 좌중을 이끌어가며 발표를 하였고 많은 청중들이 감동을 받은 듯 박수를 오래 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이제 학회도 들을 만큼 들었으니 좀 다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너무 더워서 성 조르즈 성에 올라 그늘에 앉아 쉬기만 했으나 날이 좀 풀려 돌아다닐 만했다. 벨렘지구의 제로니무스 수도원, 발견 기념비, 꼭 들른다는 파란 간판의 에그 타르트 집도 들렀다 (이건 다른 타르트와는 다른 세계, 축구로 치면 메시급 아니면 요즘 대세인 이강인급이라고 해야하나). 신트라에 방문해서 유럽 대륙의 서쪽 끝이라는 곳도 가보았다. 다른 병원 선생님들과 마지막 날 호젓하게 야경을 보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학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학회를 돌아보며, 다음부터는 나의 관심주제를 찾아서 깊이 있게 듣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내, 외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명함을 주고 받은 유일한 외국인은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같이 앉게 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다음 학회를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 하며, 짧은 방문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